

KIA 타이거즈 '이범호'

# “어느덧 만형... 젊어진 KIA 올해와 다를 것”



임창용 재계약 불발·정성훈 선수생활 은퇴  
“박수 받고 떠나고파... 내년 부상없는 시즌 최선”  
저소득층 어린이 돕기 등 나눔 활동 확대 고민도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가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

“만루 사나이”로 통하는 이범호에게 2019시즌 새로운 수석어가 생긴다. 바로 ‘만형’이 그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임창용이 재계약 불발로 팀을 떠났고, 정성훈도 올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1981년 생인 이범호는 김주찬과 함께 ‘호랑이 군단’의 ‘만형’이 됐다.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실력과 함께 코칭스태프와 후배들에게도 인정받는 리더십과 포용력을 가진 그는 앞서 2014시즌부터 2016시즌까지 3년 연속 주장을 맡았다.

김주찬이 주장을 맡은 2017·2018시즌에도 친구를 도와 선수단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이제 ‘만형’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이범호의 어깨도 더 무거워지게 됐다.

그라운드 안팎으로 모범을 보이며 2018시즌의 아쉬움을 털어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한다.

“올 시즌을 생각하면 아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돌아보면 초반에 나와 (안)치흥이가 안 나왔으면 치고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잘 안되고 팀이 꼬였다”면서 험난했던 2018시즌을 이야기한 이범호는 그러나 “올해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 팀에 좋은 약이 될 것이다”

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2019시즌을 내다봤다. 팀의 반전을 바라는 이범호는 ‘여운이 남는 마무리라’는 개인적인

목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20번째 시즌을 앞둔 이범호는 “이제 어떻게 선수 생활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입장이 됐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며 “잘된 상태에서 팬들한테도 은퇴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수받는 퇴장을 위해 이범호는 부상 없는 시즌을 위해 일찍 움직일 생각이다.

그는 “기술력은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뒤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쉽게 다칠 수 있는 나이다 보니 그런 부분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겨울에 웨이트도 많이 하고 일찍 시즌을 준비 잘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욕심은 줄일 생각이다. 팀을 우선으로 의미 있는 2019시즌을 보내고 싶은 ‘만형’의 바람이다.

이범호는 “내년 시즌 팀이 많이 젊어진다. 내가 욕심을 안 내고 후배들과 잘 적응하고 이야기 잘해나가면서 보내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김)주찬이라는 든든한 친구도 있고 야수 쪽은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며 “투수 쪽이 고참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지만 (윤)석민이랑 (양)현종이가 경험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다. 이들이 여러 면에서 잘 해 줄 것이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범호는 더 큰 나눔도 이야기한다. 프로야구 선수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들이 더 큰 나눔으로 그라운드 밖에서도 박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구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선수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왔던 이범호는 ‘차영화 코치 돕기 일일호프’를 통한 사랑 나눔도 확대할 생각이다.

이범호는 “내년 시즌에는 일일호프를 다른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고 코치님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다. 아이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외인투수 윌랜드 영입...미·일 리그 활약

외인 선수구성 타자1·투수2

KIA 타이거즈가 빅리그와 일본 무대를 경험한 조 윌랜드(Joe Wieland)를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영입했다.

KIA는 5일 조 윌랜드(28·우투우타)와 100만 달러(계약금 30만·연봉 70만)에 계약을 맺었다. 우완 조 윌랜드는 미국 네바다주 출신으로 신

장 188cm·체중 93kg의 체격에 미국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모두 경험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2경기에 출장 1승 6패 평균자책점 6.32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8시즌 동안 143경기에서 나서 59승 33패 평균자책점 3.85를 남겼다.

윌랜드는 지난해부터는 일본 프로야구(NPB)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 소속으로 활약



인 투구 밸런스를 바탕으로 한 직구 구위가 좋

다.

올해까지 2시즌 동안 모두 37경기에 선발로 나온 윌랜드는 225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3.80, 14승 11패 82탈삼진을 기록했다

윌랜드는 안정적인 투구 밸런스를 바탕으로 한 직구 구위가 좋

고,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섞어 던지며 공격적으로 승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KIA는 윌랜드와의 계약을 끝으로 2019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우승 멤버로 활약한 헥터·팻·버나디나와 모두 결별한 KIA는 윌랜드와 함께 우완 제이콥 터너(27·우투우타)와 외야수 제레미 해즐 베이커(31·우투좌타)로 2019시즌을 맞는다.

한편 윌랜드는 내년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레슬러 故 김일·양궁 김진호 ‘2018 스포츠 영웅 헌액’

2018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프로레슬러 고(故) 김일과 양궁의 김진호(56)가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3일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제7차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6명의 최종 후보자를 심의한 결과, 선정위원회·심사기자의 업적 평가(70%)와 국민지지도 조사(30%)를 고려해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고 김일과 김진호를 2018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하기로 결

했다고 5일 전했다.

김일은 프로레슬링의 선구자로 불린 박치기의 명수다. 김진호 씨는 한국 양궁의 원조 신공으로 통한다.

故 김일은 1963년 세계레슬링협회(WWA) 태그 챔피언, 1964년 북아메리카 태그 챔피언, 1965년 극동 헤비급 챔피언, 1966년 도쿄 올 아시아 태그 챔피언, 1967년 WWA 헤비급 챔피언, 1972년 도

쿄 인터내셔널 태그 챔피언에 올랐다.

어렵고 힘든 시절 국민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 공로로 1994년 국민훈장 석류장, 2000년 체육훈장 맹호장, 2006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그는 2006년 타계했다.

김진호는 예천여고 2학년에서 재학 중이던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선 30m, 50m, 60m, 개인 종합에 이어 단체전 등 전 종목을 석권하며 5관왕에 등극했다.

1983년 로스앤젤레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 5관왕,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개인전 동메달,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3관왕을 차지했고, 체육훈장 백마장,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2018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최정 SK 잔류 6년 106억원

거포 3루수 자유계약선수(FA) 최정(30)이 SK 와이번스와 6년 최대 106억원에 잔류 계약을 했다.

SK는 5일 “최정과 계약금 32억원, 6년 총연봉 68억원, 옵션 6억원에 FA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SK 구단은 “최정이 팀 간판선수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팀의 4차세 우승에도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구단에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자’는 뜻을 전달했고 최정도 이런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논에 띄는 건 계약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KBO리그 FA는 ‘4년’이 계약 기준으로 통했다.

2004년 정수근이 롯데 자이언츠와 6년(40억 6000만원)에 계약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모든 계약이 4년 이하였다.

최정은 SK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처음 FA 자격을 얻은 2014년 11월, SK와 4년 86억원에 계약한 최정은 두 번째 FA 자격을 얻은 뒤에도 SK 잔류를 택했다. 10년 동안 최대 192억원을 받는 대형 계약도 했다. 2005년 1차 지명으로 SK에 입단한 그는 14년 동안 통산 타율 0.290, 1천493안타, 306홈런, 985타점, 926득점, 135도루를 올렸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홈런왕에 오르기도 했다.

또한, 2011~2013년, 2017~2018년, 총 5차례 골든글러브(3루수)를 수상하고, 2009년과 201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다.

최정은 “신인선수로 SK에 입단하여 같이 생활해온 SK 선수들이 가족 같이 느껴진다. 홈구장인 인천 SK행복드림구장은 내 집처럼 편안하고 소중하다”며 “이곳에서 선수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구단과 성원해주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SK가 ‘제2왕조’ 시대를 맞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 MLB 돌아간 힐만

### “한국 다시 올 수 있다”

SK 와이번스에 우승 트로피를 안기고 떠난 트레이 힐만(55) 감독이 마이애미 말린스 코치로 메이저리그(MLB)에 복귀한다.

미국 일간지 ‘마이애미 헤럴드’의 클라크 스펜서 기사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캔자스 시티 로열스 감독을 지내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돈 매팅리 감독 아래 벤치코치를 맡은 트레이 힐만이 마이애미의 1루 코치가 된다’고 밝혔다.

스펜서 기사에 따르면 마이애미 구단은 6일 코치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2016년 말 SK와 2년간 총액 160만 달러(계약금 40만 달러·연봉 60만 달러)에 계약한 힐만 감독은 2년 연속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고, 올 시즌에는 정규리그 1위 두산 베어스를 꺾고 8년 만에 우승 삼페인을 터뜨렸다.

SK는 힐만 감독에게 재계약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는 고령에 병환 중인 노부모를 봉양하고자 SK의 연장 계약을 고사했다.

현재 텍사스에 머무는 힐만 감독은 SK 구단 페이스북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다.

힐만 감독은 “현재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집 뒷마당에서 팬 여러분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여러분들이 SK 팬인 것을 너무나 감사한다. SK 팬들의 감독이어서 2년간 너무나 행복했다. 우승을 팬들께 바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우승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8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넥센 히어로즈와의 플레이오프 5차전이다. 연장 10회말 김강민과 한동민이 연타석 홈런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며 “언젠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이며, 한국에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말을 마지막 인사로 전했다. /연합뉴스